

■ 전통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상반기 전통분야
- 회의일시 : 2018. 06. 08(금) 09:30~12: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도 상반기 전통분야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는, 지원금액 대비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신청한 모든 개인·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들 공연에 6일 대관을 하는 경우처럼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장 대관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다소 축소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사업의 공연 품질, 프로그램 구성, 준비와 실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신청서에 제시된 사업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너무 소략한 정보만을 담아서 심의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창작곡 공연의 경우 단순한 조성음악 양식 혹은 유행하는 록밴드 양식에 한 두 가지 국악기만 첨가되는 것처럼 실제 그 공연의 내용이 전통예술분야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신청서에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담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성격과 공연의 품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신청서의 경우는 이번 심의에는 신청건이 많지 않아서 큰 무리없이 지원을 결정하였지만, 향후 조금만 경쟁이 강화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통 내지 국악분야 공연이 결코 적지 않고 횡수로는 이미 4천~5천회의 공연이 연간 펼쳐지는데 그에 비하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극소수의 개인·단체만이 신청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하거나 혹은 소극장 공연의 경우 신청서 작성의 노력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관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탓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문예진흥기금 신청에 경험이 많고 서류작성에 밝은 몇몇 개인과 단체만이 매년 반복해서 기금지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번 심의처럼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작품의 품질이나 공연의 열의·진정성이 떨어져도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금이 전체적인 전통분야 공연 예술 생태계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이 사업이 전통 분야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제고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과 건강한 진정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고, 공연의 국적과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청서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신청서는 예외 없이 탈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